



날아라~ 스케이트 보드 낮기온이 최고 11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8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천억 붓고도… 시내버스 경영개선은 요원

준공영제 10년…내년 재정지원금만 580억 달할 듯

버스업체 자발적 원가절감·경영 효율화 노력 뒤따라야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한 지 10년 만에 누적 지원금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준공영제 재정지원 정산검사 결과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 5억6400만원과 차량보험료 표준한도 내 실비정산액 8400만원 등 과지급된 운송원가 7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광주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할 2015년도 재정지원금으로 529억원을 확정했다. 이 지원금은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이다. 버스 요금 등 수입금은 1261억원, 인건비와 원료비·정비비·보험료 등 운송원가는 1790억원으로 확정했다.

문제는 버스업체 경영상황이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운송수입은 주는 데 반해 운송원가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640억원인 운송원가는 2015년 1790억원으로 늘었다. 요금과 광고 등 운송수입은 1290억원에서 1261억원으로 오히려 29억원 줄었다. 시가 내년에 정산할 2016년도 재정지원금도 이 추세를 고려하면 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352억원으로 300억원대로 올라섰으며 2014년에는 445억원, 2015년 500억원대를 기록했다. 누적 지원금만

3148억원에 달한다. 도입 첫해와 비교해 9년 사이 333억원이나 폭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6년에 적용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송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한 연료절감장치와 표준연비제 병행 시행, 정비·관리직 인건비 인상률을 운전원 인상률의 150% 이내로 설정하고, 인건비 미사용액 환수에 따른 과도한 급여인상 방지 등이다.

시는 또 적정여유 중 성과여유의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평가를 통해 차등배분함으로써 업체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과여유 비율은 2018년 50%까지 매년 10%씩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말 시내버스 노선과 운영방식 결정, 운송비용 보전 등 공공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버스 운영, 근로자 채용, 경영관리는 민간 운송업체에서 맡도록 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시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체불과 낮은 임금 수준, 불친절, 비수익 노선 운행 기피 등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높여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행했다.

한편 광주시는 10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운행관리, 친절도 서비스와 경영 및 재무 등 경영평가를 해 13억원을 차등배분했다. 서비스평가 1위와 2위는 대진운수와 대창운수가, 경영평가는 각 라정버스와 대창운수가 차지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5월단체, 묵념 제한 국민의례 개정안 강력 반발

광주시와 5월 단체가 5월 영령에 대한 묵념 등을 제한한 국민의례 규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기존대로 5월 영령에 대한 뉘를 기리는 묵념을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 시장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있는 5·18민주와 운동의 부정은 시대적

오착이고 전근대적 발상이며, 광주시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행자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당연히 현재와 같이 숭고한 마음으로 5월 영령들을 애도하고 추념할 것이며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당당하고 힘차게 부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자유자회)도 성명을 내고 “행자부 규정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5월 영령을 묵념대상으로 호명하지 않는다면 행사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번주부터 영하권 추위

포근한 겨울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기온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남해안을 제외한 지역에서 5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에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재기자 ej6621@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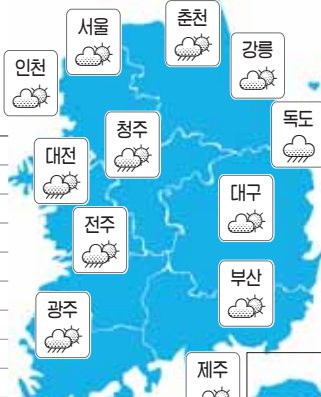
해돋이 07:41
해질 17:38
해질 14:46
달일 03:48

옷깃 여미는 하루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온뒤 맑음	5/8	보성	흐린뒤 맑음	3/8
목포	흐린뒤 맑음	4/7	순천	흐린뒤 맑음	4/10
여수	흐린뒤 맑음	4/9	영광	비온뒤 맑음	3/6
나주	흐린뒤 맑음	3/7	진도	흐린뒤 맑음	4/7
완도	흐린뒤 맑음	5/8	전주	비/눈온후 맑음	4/7
구례	비/눈온후 맑음	3/8	군산	비온뒤 맑음	4/6
강진	흐린뒤 맑음	4/8	남원	비/눈온후 맑음	3/8
해남	흐린뒤 맑음	4/8	축산도	흐린뒤 맑음	2/8
장성	비온뒤 맑음	3/7			



◇바다 날씨

		오전	오전	오전	오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5~3.0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0.5~2.0
남부	앞바다(동)	북서~북	1.5~3.0	북서~북	1.5~3.0
남부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체감온도	관심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04	11:20
	16:55	23:30
여수	12:36	06:32
	—:—	18:45

◇주간 날씨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6	-3/3	-2/7	-1/5	-2/3	-3/3	-2/5

‘깨진독 물 붓기’ 송정농협 요식업 투자

한우매장 누적 적자 6억원…위탁운영 내용 공개 안해 논란도

광주 송정농협이 10억원대의 예산을 투자, 식당 사업에 진출했지만 경영 부진과 방만한 운영 등으로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농협은 또, 이 식당의 적자가 누적되자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방식을 위탁운영으로 바꿨지만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산구와 농협 등에 따르면, 송정농협은 지난 2010년 송정5일시장 부지 339.53㎡를 광산구로부터 임대한 뒤 전제면적 864㎡ 규모의 3층 건물을 1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 ‘명성항우’라는 한우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송정농협은 해당 건축물을 17년간 사용한 후 광산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며, 인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우(쇠고기)만 취급하겠다는 약정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명성항우’ 식당은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해 지난해 1억7000만원의 적자가 나는 등 현재까지 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명성항우’ 오픈 이후 2년째까지는 배당금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10~15만원 가량의 상품권 매출로 식당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배당금 지급 기준 강화로 조합원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식당에서 한우고기만 취급하겠다’는 내용의 판매품목제한 약정도 적자를 발생시키는 이유로 풀리고 있다.

송정농협 측은 적자가 누적되자 직영체제로 운영했던 이 식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탁운영체제로 바꾼 뒤 A씨를 공동대표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지만 손실보전 방법이나 이익금 배분 원칙 등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농협 B모(58) 조합원은 “지금이라도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약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위탁운영을 계속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협 측이 투자 손실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선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위탁운영은 자칫 조합원은 무기한 채 위탁 운영자만 배를 불리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농협 김형덕 조합장은 이에 대해 “이 사업은 전임 조합장이 추진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17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 계획 당시 일부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는에도 결국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로수석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인공신장실(야간투석)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종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 입원실(46 bed)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 광주시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 광주천변로
평천사거리 | 태영21병원
신세계 백화점 | 유스퀘어 터미널 |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